

# 갈수록 농사 안 짓는 '농도 전남'

### 작년 휴경 면적 5998ha...광주·전남 10년새 1500ha 증가 광주지역도 138ha...휴경 농지관리·영농 방법 등 전환 절실

광주·전남지역 지난해 휴경면적이 10년 전보다 1500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짓다가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둔 땅이 1500ha 늘어났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유휴지의 지나친 증가는 식량안보 위기 때 농지로서의 사용이 어렵다는 점 이외에도, 농지자원으로서의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지이용 정책의 방향은 '유휴지 발생 억제 및 휴경농지의 효율적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휴경면적은 광주 138ha·전남 5998ha 등 6136ha로, 10년 전인 2009년(4643ha) 보다 1500ha(32.1%) 가량 늘었다.

광주·전남 휴경면적은 전국(6만529ha)의 10.1%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지역 휴경면적은 5570ha(2010년)→6005ha(2011년)→6481ha(2012년) 등 가파르게 증가하다 2013년

4880ha로 꺾였다.

하지만 2016년 3639ha, 2017년 3734ha, 2018년 6352ha 등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총경지 면적에 대한 총경작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 경지이용률은 광주 109.1%·전남 121.1%로 나타났다. 10년 새 광주 9.8%·전남 1.9% 감소한 수치다.

전남 경지이용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 비율도 전국 평균(107.2%)을 웃돌며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농지자원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농지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휴경농지 관리와 영농방법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안했다.

강도 높은 농업을 하는 농경지를 줄이게 된다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관리되지 않은 휴경 농지(농지 유휴지)는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양분과잉 상태"라며 "휴경지의 적정 관리를 통한 집약적 영농의 탈피가 필요하며, 영농방법 전환을 통한 농지 이용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OECD가 농경지에 투입하고 방출하는 양분의 동향을 분석한 '양분수지'를 기준으로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양분과잉을 나타낸다"며 "토양 침식의 경우에는 경사지가 많은 국내 지형의 영향을 받으며 주로 풍식이 발생, 발토양의 유실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지역 1ha당 토양 유실량은 47t으로 전국 평균 유실량(37.7t)을 웃돌았다. 9개 도 중에서는 경남(64t), 강원(49.4t)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국내 환경의 상태를 고려해,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지의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양적 관리' 부문에 있어서 적정 휴경지 면적 추정 및 한계지의 휴경지 전환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휴경농지 관리는 유휴지가 되기 쉬

운 생산 한계지를 중심으로 휴경을 하도록 유도하되, 농업인에게 농지 형상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은 비록 생산조정 효과는 낮겠지만 식량안보 위기를 대비해 농지 형상을 유지하고 환경 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농업 활동의 환경 압력을 낮추는 영농방법으로 전환하는 '질적 관리'도 해야 하며, 농업인이 환경 안전에 있어 최소한의 지킴이 하는 규정인 '교차준수'와 그 추가 이행 노력에 대한 '농업환경지불'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약사용의 경우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낮은 수준의 교차준수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감축을 통해 수질 및 생태계다양성을 개선하는 것을 농업환경지불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국내 농업정책은 생산연계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생산비(非)연계 정책으로의 농정 전환이 필요하며, 교차준수 및 농업환경지불 정책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인 환경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국농어촌공사,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등 행안부, 최고등급 평가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54개 공공기관 중 안전관리 분야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25개 기관에 대해 재난관리 역량 및 정책 추진실적을 재난관리 단계별로 구성된 46개 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1년간 재난관리 성과를 평가했다.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이 대상인 교통, 철도, 에너지, 안전관리 내 분야 중 안전관리에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등급을 받았다.

공사는 사회·자연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해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한 노력과, 재난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지난해 경영비전 선포식을 통해 '재난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전담조직인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해왔다.

또 365일 운영되는 시설물점검 119센터를 통해 재난에 취약한 지자체 공공시설 111건에 대한 무상 기술 지원을 펼쳤다. 시설별로 보면 저수지 66건, 양배수장 11건, 교량 9건, 기타 22건 등 기술 지원을 했다.

지난해 7차례의 태풍을 겪으며 농어촌공사 직원 2만3000여 명(누적)이 91일 동안 비상 근무를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상호금융 대출금 15조원 달성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상호금융 대출금 15조원을 달성해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은 지역 농·축협의 건전 경영과 내실 성장을 유도하고 자 수여하는 상이다. 달성탑 수여식은 중앙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

전남본부는 지난 2015년 대출금 10조원 달성을 이후 5년 만에 15조원을 넘겼다. 이는 다양한 대출상품들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민들에게 영농자금, 사업자금, 생활자금을 지원한 결과라고 전남본부는 설명했다.

농협 상호금융은 농업인 우대상품인 '농업인행복대출', '청년농업희망종합통장',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사잇돌중금리대출', 직장인 대상 비대면인신 'NH 직장인스마트론'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이번 15조원 달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적시에 제공해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며 "전남농협은 이제까지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농업인과 지역민들과 함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마늘 국내 과잉생산 예상에 미국·대만 수출 확대

###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지난해보다 550배 증가

올해 마늘의 과잉생산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미국과 대만 등 국가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미국으로 수출된 국산 마늘의 규모는 지난해(8000달러)보다 550배 가량 늘어난 440만달러를 기록했다. 대만 피마는 수출액도 지난해(1600달러)보다 340배 가량 증가한 55만달러로 집계됐다.

aT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산 마늘의 미국 수출이 급감, 한국산 마늘 수출이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aT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국에서의 과당경쟁 방지와 수출창구 단일화를 위해 마늘수출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마늘수출협의회는 연말까지 모든 회원사들에 기존 물류비의 2배인 14%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 최저가격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수출협의회 회원사에 한해서는 기존의 수출물류비 지원조건인 최근 1년 내 해당

부류 수출실적이 FOB(본선 인도 가격) 기준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마늘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협의회 회원사는 수시 모집하기로 했다.

aT는 마늘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을 포함해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업체 판촉전, 현지 유명 셰프 등을 활용한 마늘조리법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도 펼친다.

신원근 aT 식품수출사업사는 "aT는 마늘의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마늘 수출지원단 태스크포스'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과잉생산된 국산양파를 16개국으로 5만t 수출한 노하우를 살려 올해는 마늘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농철 노사 일손 돕기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오른쪽)와 전국금융산업도조총합 NH농협지부 광주지역본부(위원장 박삼지) 소속 50여 명은 지난 4일 북구 금곡·평촌마을의 감·포도 농가에서 일손을 도왔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돼지열병 안걸렸으니 괜찮아? ...방역 구멍

### 경기남부·충청 이남 전체 방역 미흡 중 99%

전국 양돈농장 가운데 방역이 미흡한 사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하지 않은 경기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 사례가 확인된 양돈농가는 전남 372건 등 총 3289건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 5763호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차단방역실태 일제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3분의 1이 넘는 36.0%에 달하는 2076호(3289건)에서 방역수칙 미

준수 등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미흡 사례 중 98.7%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기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이었다.

경북이 8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602건, 충남 586건, 전북 407건, 전남 372건, 경기남부지역 235건, 강원남부지역 79건, 충북 74건, 제주 30건, 세종 13건, 대구 11건, 울산 7건, 부산 6건, 인천 4건, 대전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례별로는 퇴비장 차단망(1046건), 외부 울타리(1021건), 돈사 틈새차단망(325건) 등 방역 시설 설치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돈사 전용 장하나 손 씻기 시설이 미비하거나 멧돼지 기피제를 설치하는 경우도 각각 238건, 227건 확인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